

## 광주시립수목원, 공립수목원 기념 '식물 표본 전시회' 연다

1월20일~3월1일 수목·초화류 표본 36점... 완도수목원과 협력

광주시립수목원이 국내 유일 나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과 협력해 '식물 표본 전시회'를 연다. 광주광역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봄을 품은 투명한 겨울'을 주제로 한 식물 표본 전시회를 1월20일부터 3월1일까지 광주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수목원이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전남도 완도수목원과 함께 마련했다. 전시회는 시립수목원이 기획했으며, 전시물은 완도수목원이 직접 채집·제작한 식물 표본이다. 이번 전시에는 산딸나무 등 수목류 20점과 꽃향유 등 초화류 16점 등 36점의 식물 표본이 선보

인다. 전시 표본들은 특수 보존기법인 솔리디움 공예와 레진 공예 기법을 사용해 액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식물을 장기간 보존하면서도 꽃과 잎의 구조를 선명히 관찰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꽃이 피어있는 순간을 투명한 표본 속에 보존해 자연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표본의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전달한다. 광주시립수목원은 관람객들이 겨울철 전시회에서 봄의 흔적과 생명의 이야기를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새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는 수목원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김희석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수목원이 광주시민들에게 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이 전시회를 찾아 봄의 온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수목원·정원사업소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수목원은 지난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제1호이자 전국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시립수목원은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녹색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목유



전자원 보전·관리와 함께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전시회와 함께 1월20일부터 2월13일까지 6~10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흔적으로 찾는 야생동물 ▲나만의 다육이 정원 만들기 ▲톡톡한 로제트 ▲겨울나무로 전하는 마음 등 4가지 겨울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명수 기자

## 광영도서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유아·어린이 맞춤형 도서 지원, 2026년 서비스 확대

광영도서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책 읽어주는 인공지능(AI) 독서 로봇 '루카(LUKA)'를 활용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도서 대출 서비스는 유아·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정과 보육·교육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루카는 유아 눈높이에 맞춘 음성 안내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며, 글자를 모르는 아이도 혼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가정과 보육·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10회 운영되며, 대출 대상은 유아·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 기관이다. 대출 시에는 루카 본체 1대와 도서 1세트(15~35권)를 함께 제공하며, 대출 기간은 3주이다. 대출 및 반납은 광영도서관 4층 놀꿈터 안내데스크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광영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광영도서관 4층 놀꿈터 안내데스크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확정된 뒤 도서 선택과 대출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광영도서관(☎ 797-37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규모를 확대해 5월 중 루카 본체 5대와 도서 100권을 추가 구입할 예정이며, 6차 운영부터는 루카 본체 11대와 루카 도서 16세트(512권)를 활용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도서 대출 서비스는 유아·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독서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도 매년 상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은 가정과 보육·교육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어린이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다산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립박물관' 첫 인증 획득 설립 이후 첫 국가 인증으로 전문성·공공성·운영역량 공식 인정

강진군 다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며, 201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전국 254개 공립박물관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다산박물관은 전시, 교육, 조직 운영, 고객 서비스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가가 인정한 신뢰받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며, 설립 목적의 충실성, 자료 관리의 전문성, 전시·교육 운영, 관람객 서비스, 시설 및

인력 운영 등 종합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박물관에 대해 '우수 박물관' 인증을 부여한다. 다산박물관은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물과 학문적 정신을 전시와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리는 강진 대표 문화시설로, 현재 5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간 6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산과 강진' 특별전, 청렴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박물관을 생활속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은 다산박물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국가 인증으로, 다산박물관 전 직원이 평가 대비를 위해 박물관 전반의 운영 기준과 서비스 품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유물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시 콘텐츠 개선, 관람 환경 정비, 고객 피드백 체계 구축 등 다방면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김선재 다산박물관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품은 이 공간이 '우수 박물관'으로 국가의 공식 인증을 받게 되어 매



우 뜻깊다"며 "군민과 관람객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박물관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통해 강진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동구합창단, 2026 신규 단원 공개 모집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전 파트...지역 음악 인재 참여 기대  
광주 동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품격 있는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동구합창단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전 파트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구인 자 중에서 주 2회 정기연습 및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음악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많으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며, 세부 내용과 일정, 합격자 발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합창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각종 공연과 구 행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음악을 사랑하고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 곡성어린이도서관, 새해 맞아 특별 문화행사 선보여

표현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17일 진행된 「연향」 공연은 '새해와 '겨울'을 주제로 한 모던 국악 무대로 구성돼, 어린이 가족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8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이 밖에도 독서와

## 곡성어린이도서관, 새해 맞아 특별 문화행사 선보여

예술, 공연을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독서교실 ▲이명애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영어 뮤지컬 공연 ▲성인·어린이 독서동아리 운영 등이 예정돼 있으며, 세대별 맞춤형 문화 활동

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새해 특별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며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책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잇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 농지

지가 있다면

#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 농지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